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3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3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포커스: 시각장애인의 몸부림과 '함께 가면' / 백종환(에이블뉴스 대표)

장애인계 뉴스

1. 2013년 장애인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증가
2.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조약에 합의
3.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전 접근성 포럼' 창립
4. LX대한지적공사, 저시력장애인과 희망을 나누다
5. 국내최초 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 웹사이트 & 애플리케이션
6. 수원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심사 품질마크 획득
7. 진창원 교육연구사 교과부 발령, 시각장애인의 공직진출 가능성 다시금 입증

독자마당: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 문광만(경기도 시흥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1): '팁(tip)'과 '파트너십(partnership)'의 순화어

~~~~~

## 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익입니다. 바쁘고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계사년 첫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해를 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기쁜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로 인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들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상대로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검찰수사에 염려하시고 마음 졸였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 많은 격려로 저를 위로해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묵은 감정들 이제 다 털어내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 더욱 하나 되고 발전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보다 즐겁고 기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 기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많은 양적 질적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곰두리장애인체육센터를 수탁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복지시설만을 운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수탁운영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우리 연합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초석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정부예산에 저는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부와 지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근본은 회원이며 이러한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곳이 지회이고 지부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과과정에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지부와 지회가 직접 예산을 받아서 각종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비대한 중앙회, 왜소한 지부·지회’가 아니라 회원의 발전이 지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지회의 발전이 지부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지부의 발전이 중앙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회 발전모형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중앙회는 더욱 노력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신규로 학습지원센터가 중앙회에 설립되면 더욱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3년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가 늘어나고 방송물량 또한 늘어나고 4월부터는 웹 접근성을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들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화면해설방송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하여 가전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의 장애인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 스마트 기기의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접근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직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끊임없는 도전이 있지만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후보직종으로 존속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마 외에 다른 직업을 꿈꾸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실명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해외원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및 예산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국제협력사업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자산을 투입하여 국내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회장직을 수행한지 4년차가 됩니다.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개혁을 부르짖었고 나름대로 저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올 한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매듭을 단단히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꿈꾸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모습, 회원이 잘살고 행복하며 회원을 위해 일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부와 지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저의 정책적 방향을 마지막 한해에도 꾸준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있기에 저의 부족함을 채워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보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한해 여러분의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희망찬 새해 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 올림

~~~~~

## 포커스

### 시각장애인의 몸부림과 ‘함께 가면’

백종환(에이블뉴스 대표)

“시각장애인도 후보자의 모든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유권자는 24만 명이며 이중 점자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각장애 유권자가 8만 명이나 됩니다. 8만 명의 참정권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과 평등권, 장애인 보호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외친 함성이다.

‘선거공보물’이 후보자와 정당 정책 공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시각장애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공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임의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각장애 유권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접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사회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유형들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빼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인터넷을 통해 교류되고 소통되고 또한 살아 갈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는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병원, 대학교 등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효력은 있으나마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말, 시각장애인 10명을 비롯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장애인들은 ‘함께하는’, ‘더불어’, ‘완전한 사회참여’를 거부당하며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대통령선거에서, 또는 인터넷에서만이겠는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서조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에게 차별적 행위인 ‘빨간 카드’를 내밀며 입장을 거부하고 퇴장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교공동체나 직장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내몰리며 이 땅의 주변인으로 맴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장애인의 현주소임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람 사는 세상과 격리당하고 또 더불어 살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회구조적 장벽에 부딪히지만 최근 이틀 세력과 당당히 맞서 ‘함께 사는 사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헌법소원, 손해배상 소송 등은 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몸부림이며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장애인 모두에게 편안함과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사회 어느 곳에든지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들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생떼를 쓰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때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수렴해서 해법을 찾는 모습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

중국 시인 노신은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의미이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가면’,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완전한 사회 참여’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

## 장애인계 뉴스

## 1. 2013년 장애인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증가

국회는 새해첫날 본회의를 열고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41조67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49개 사업에서 8,736억 원이 증액됐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 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2,332억 원이 증액됐다. 이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던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 2,946억 원보다 16.8% 늘어난 3,440억 원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53억 원 더 높게 책정했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기초급여 9만 7,100원을 11만 6,600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하지만 기초급여는 정부안대로 2,500원 확대되는데 그쳤다. 2012년 예산심의 당시에도 부가급여 5~6% 인상이 추진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거품 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9만7,10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부가급여 월 2만원 인상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615억 원 늘어난 3,82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린 3,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530여억 원 증액한 4,744억 원을 책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615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확대해 최대 월 360시간(기본급여 포함)까지 활동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을 기존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중증 수급자 증가족구성원의 직장·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감안해 추가급여(하루 6시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 예산도 지난해 보다 10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 3,500명에 월 111만 2,000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87만 7,000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7,000명에서 7,700명으로, 지급액도 25만 9,000원에서 27만 3,000원으로 늘어난다. 경로당 안마사 파견은 지난해와 동일한 330명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110억 원 늘어난 677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49억 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원 늘어난 15억 원으로 편성됐다.

## 2.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조약에 합의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걸림돌이던 도서 저작권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난해 12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약에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시각장애나 인쇄물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컨퍼런스를 올해 6월에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UN의 전문기구로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도서장르와 상관없이 비시각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책을 읽고 싶지만 그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큰 글씨, 점자, 음성 등 접근 가능한 다른 형태의 책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법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도서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의 조약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련 장벽들을 허물고, 2억 8천 5백만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요 회원국인 미국이 아직 조약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은 지난달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2013년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조약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마리안 다이아몬드 회장은 “WIPO 임시총회의 결정은 조약 채택의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각 회원국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의를 2013년에 이끌어 내는 데에 동의했다. 이것이 완료되면 천 권이 넘는 도서를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도서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완성단계까지는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모든 단체들이 조약에 대해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라홀 체리안 회원은 “이번 조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각장애인이나 인쇄물에 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쇄물에 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당사자 단체들이 그 조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WIPO의 조약은 2009년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제안으로 협의를 시작됐으며, 회원국들의 도서를 접근 가능한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로의 제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들의 권리 침해가 아닌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오직 시각장애인들과 활자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도서제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전 접근성 포럼’ 창립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전 접근성 포럼’이 지난해 12월 12일 창립했다.

최근 가전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TV 등 혁신적인 가전제품이 나오면서 비장애인의 사용편익은 커졌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제품 사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 접근성 포럼이 발표한 TV, 냉장고, 세탁기, 밥솥, 정수기, 휴대폰 등 6개 제품에 대

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가전제품의 접근성은 평균 77.7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시각장애의 접근성 점수는 저시력인은 66.5점, 전맹은 52.8점에 그쳐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TV'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원 버튼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외부 연결부는 색깔로만 종류를 나타낼 뿐 모양을 달리하거나 점자를 넣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리모컨 버튼에는 촉각적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은 텍스트를 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인 '토크백(Talkback)' 기능 버튼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고, 접촉하면 바로 기능이 실행돼 조작 오류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버튼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나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아 구분이 불가능하며, 손잡이를 통해 설정되는 세부사항(물의 온도, 행균 횟수 등)의 내용이 의미 없는 알림음으로만 전달돼 시각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냉장고'는 버튼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촉각 표시나 음성출력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아 옵션의 구분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문을 여는 방식이 손잡이를 들어 올린 후 당기는 방식인데 당기는 동작에서 비교적 많은 힘이 필요해 신체운동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조작하기 어려웠다.

'전기밥솥'의 경우 버튼을 터치하면 확인과정 없이 바로 기능이 실행돼 시각장애인이 버튼의 내용과 위치를 구별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능했고, 취사·보온 등의 설정 상태 확인은 글자표기, 표시램프의 점멸 등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정수기'도 음성안내 없이 알림음과 표시램프의 점멸로만 상태를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이 내용과 상태를 인지할 수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이성일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모든 가전제품이 접근성이 부족했고 시각장애인 특히 전맹 사용자의 접근성이 취약했으며, 접근성 관련 국제표준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조작을 필요로 하는 메뉴 옵션이 매우 다양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 접근성이 더 취약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가전 접근성 포럼 창립일인 12월 12일 가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접근성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한 법)에 가전제품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접근성 인증절차(평가, 인증마크 부여 등)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4. LX대한지적공사, 저시력장애인과 희망을 나누다

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 이하 지적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달력 2,000부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 전달했다.

지적공사가 한시련에 달력을 기증한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18일 한시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시련과 지적공사는 시각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업무협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업무협약이 체결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토지측량, 토지감정평가 등 지적공사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공사는 캄보디아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택 헌정, 결식아동 돕기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일반달력 사용이 어려운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달력을 제작했다.

이번에 기증된 달력은 한시련 16개 지부를 통해 전국의 저시력장애인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 5. 국내최초 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 웹사이트 & 애플리케이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1월 3일 국내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국내 여행정보 제공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을 공개했다.

'함께하는 여행'(사이트 주소: [access.visitkorea.or.kr](http://access.visitkorea.or.kr))은 국내 여행지, 숙박, 음식점, 대중교통, 여행 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의 편의시설도 소개하고 있다.

웹사이트와 함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공개 되어 여행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국내 여행지, 숙박, 음식점 등 550여개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 내용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확한 여행정보가 없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여행가는 것을 불편해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6. 수원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심사 품질마크 획득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대부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은 매우 낮다.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조차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보니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시행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http://www.suwon.go.kr))가 최종합격해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수원시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 초부터 웹 접근성 개편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웹 서비스 모니터단과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이번 인증심사를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정보 등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설치 등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7. 진창원 교육연구사 교과부 발령, 시각장애인의 공직진출 가능성 다시금 입증

진창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43, 시각장애 1급)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 교육전문



직으로 발령받았다.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진창원 교육연구사가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특수교육과로 파견 발령됐다. 교육연구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직으로, 진창원 연구사는 감각장애(시·청각장애)학교 지원, 장애학교운영에 관한 정책연구,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됐다.

1999년부터 13년간 서울맹학교 교사로 재직한 그는 2010년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 3월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채용됐다.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진창원 교육연구사의 중앙부처 발령은 공직진출을 꿈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연구사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고, 정책·제도 관련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서울맹학교에서 오래 근무했었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독자마당

###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 문광만(경기도 시흥시)

요즘 내가 폭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이 서로의 개인정보와 글, 영상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 인맥을 쌓는 사이트-편집자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기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 내 글의 주제는 '시각 장애'로 대부분 시각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 보행, 보조기기 등 시각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쓰고 있다.

내가 페이스북에서 인맥을 쌓은 친구는 거의 4천명에 이른다. 그 친구들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정안인도 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쓰면서 놀랄 때가 많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소한 것들이 마치 대단히 신기한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많은 정안인들이 아직도 시각장애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시각장애인의 보행부터 안마, 컴퓨터 보조기기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정안인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는 내 마음은 무겁다. 많은 이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새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1999년에 시력을 잃었지만 3년 전에야 재활을 시작했다. 처음에 컴퓨터를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지인으로부터 '고도원의 아침편지'(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주는 서비스-편집자 설명)라는 것을 받아 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보내주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때부터 언젠가는 나도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

보일 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글을 쓰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는 것 같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동호회에도 많은 글을 올리고 있다. 정식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운 적은 없다. 그저 나의 생각, 느낌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을 ‘수필’이라는 말의 뜻처럼 붓 가는 대로 적고 있을 뿐이다. 가슴 아픈 내용을 쓰면 함께 슬퍼해 주고 기쁜 일을 쓰면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로 인해 나도 감동을 받고 글 쓰는 일이 점점 즐거워진다.

재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도 함께 시작했다. 막연하게 도전한 것이지만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사회복지와 장애인에 대해 더 잘 아는 계기가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꿈도 생겼다. 나의 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 그중에서도 나와 같은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갖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관도 많지 않고 직원 수도 한정되어 있기에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운이 좋게도 내가 사는 시흥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점자와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비록 일주일에 이틀이지만 무척이나 즐겁게 일하고 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내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거창한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흐뭇하다.

요즘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중도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기기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흰지팡이와 점자에 관한 글을 지겨울 만큼 흔하게 읽어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해 잘 모르는 정안인들에게는 그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재가 돼 준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안인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알아간다면 우리와 훨씬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달 전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70여 편의 글을 올렸다. 나의 재활이야기, 시각장애인 안내보행 등 모두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려운 친구를 소개하는 가슴 아픈 글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애쓰는 기관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글을 읽은 이들은 내 글에 공감하고 감사함을 전하기도 한다.

사실 매일 글을 쓴다는 게 날이 갈수록 무척이나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도 그런 수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비장애인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작지만 큰일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나기도 한다.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다보면 언젠가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2월 17일(월요일) 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노들담 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동인천역 집중유세에 참석했다.

18일(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과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카페인음료 안전관리방안 토론회 주최와 축사를 맡았다. 이날 각 언론매체에는 지난 국정감사 때 최동익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실렸는데, 내일신문 등에는 고카페인음료 판매규제에 관한 기사가, 웰페어신문 등에는 시설어린이 한 끼 밥값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9일(수요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 이날 농민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내용이 보도되었다.

20일(목요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과 국제대회 지원에 관해 논의했으며, 다음 날인 21일(금요일)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들과 장애아동보육지원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22일(토요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연수를 주재했으며, 23일(일요일)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근로장애인 송년회에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24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회의와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으며, 크리스마스인 25일(화요일)에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27일(목요일)에는 목포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심사에 참석했다.

28일(금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재선출 의원총회 참석에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종무식을 주재한 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송년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30일(일요일)에는 백송회 송년회에 참석했으며, 12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월요일)에는 복지TV 신년 축하영상 촬영에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2012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1)

### 1) ‘팁(tip)’의 순화어: 도움말

‘팁’이란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도록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말’을 뜻한다. 외래어 팁(tip)은 원래 다양한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때의 팁은 ‘봉사료’로 다듬어 쓸 수 있다.

최근 방송 및 신문 매체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 대인 관계, 공부, 외모, 건강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때 팁(tip)이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그런데 이때의 팁은 오래전부터 외래어로 쓰여 온 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다. 최근 자주 쓰는 팁이라는 말은 주로 ‘정보, 조언, 힌트, 비법’ 등의 의미이다. 그 중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쓰이는 팁의 의미는 ‘도움말(조언), 비결’ 등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문맥에서는

팁을 그냥 쓰기보다 다듬은 말인 도움말이라고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 ㄱ. 화법의 달인처럼 말하는 몇 가지 도움말(팁)!
- ㄴ. 오늘 아침프로그램에서 명절 증후군을 비롯해 설 연휴 동안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 도움말을 알려줬다.

**2) '파트너십(partnership)'의 순화어: 동반관계**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개인, 조직·단체, 국가가 규칙적으로 함께 일하는 관계'를 말한다. 최근 들어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간에 동반관계를 맺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상생전략의 하나로 '동반관계'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파트너십을 구축하다/수립하다/맺다'처럼 쓰이는데, 파트너십은 다듬은 말인 동반관계라고 쓰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파트너'를 '협조자, 짝, 동료' 등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은 '국제적 동반 관계'로 다듬어 쓰기로 한 바 있다.

**-예시**

- ㄱ. 두 기업은 지속적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ㄴ. A기업과 B대학은 산학 협력 동반관계를 맺기로 하고, 대학생의 직무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